

EAI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로 본 사회갈등 인식의 변화(이념/세대/계층)

2020. 7. 6

정한울(한국리서치 전문위원)

- 본 발표의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분석과 해석 결과로 소속기관의 입장과 무관함

한국 사회갈등인식의 구조 변동

한국사회 갈등 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

* 이념=이익=정체성 갈등은 중첩될까?

*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갈등은 무엇인가? 이념갈등 > 계급갈등 > 정체성 갈등

계급갈등 성격의 변화: 자본 대 노동보다 노-노 갈등 심각

* 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비정규직 갈등을 완화시키나? 격화시키나?

1. 사회집단간 갈등과 거리감

❖ 사회집단간 거리감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사회 Top3 갈등: “민주-통합”, “진보-보수”, “정규직-비정규직”
- 진보-보수 진영 정치이념 갈등, 계층 갈등 우려 심각 (60% 이상)
- 정체성 등 영호남 지역주민, 수도권-지방주민, 남-여 갈등 우려는 상대적으로 약해

2005	크다	2010	크다	2015	크다	2020	크다
빈-부		한나라-민주	83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85	더불어민주당-통합당	90
한나라-열린우리당	86	빈-부	79	빈-부	82	진보-보수	83
기업가-노동자	76	기업가-노동자	73	정규직-비 정규직	81	정규직-비 정규직	80
정규-비정규	75	고-저학력	72	기업가-노동자	78	빈-부	78
대기업-중소기업	74	정규-비정규	70	진보-보수	75	기업가-노동자	73
고-저학력	72	대-중소기업	68	대기업-중소기업	70	대기업-중소기업	66
세대갈등	64	진보-보수	62	세대갈등	70	세대갈등	64
진보-보수	63	세대 갈등	59	고-저학력	65	고-저학력	64
호남-영남 주민	60	호남-영남	51	영호남	56	영호남	59
수도권-지방 주민	45	중앙-지방 정부	51	중앙-지방 정부	52	행정-입법	44
남-여	34	수도권-지방	42	행정-입법	48	수도권-지방 주민	44
중앙-지방 정부	-	남-여	33	남녀	37	중앙-지방 정부	42
						남-여	35

❖ 사회집단 갈등인식 구조

- 사회적 집단간 갈등인식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 ✓ 권력기관(입법-행정, 중앙정부-지방정부 등) 평가는 제외
- (1) 계급갈등 요인 (2) 이념적 갈등 (3) 정체성 갈등요인으로 분류
 - ✓ 세대갈등은 정체성 갈등 아닌 계급갈등으로 분류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

	성분		
	1 계급갈등요인	2 정체성 갈등요인	3 이념적 갈등
빈-부	0.769	0.125	0.045
기업가-노동자	0.703	0.138	0.247
정규직-비정규직	0.666	0.003	0.244
고학력-저학력	0.653	0.388	0.036
기성세대-젊은세대	0.491	0.398	0.276
남성과 여성	0.105	0.793	-0.046
영남과 호남주민	0.022	0.647	0.384
수도권과 지방 주민	0.281	0.607	0.060
진보와 보수	0.119	0.182	0.784
더불어민주당-통합당	0.307	-0.007	0.775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2. 사회집단 갈등인식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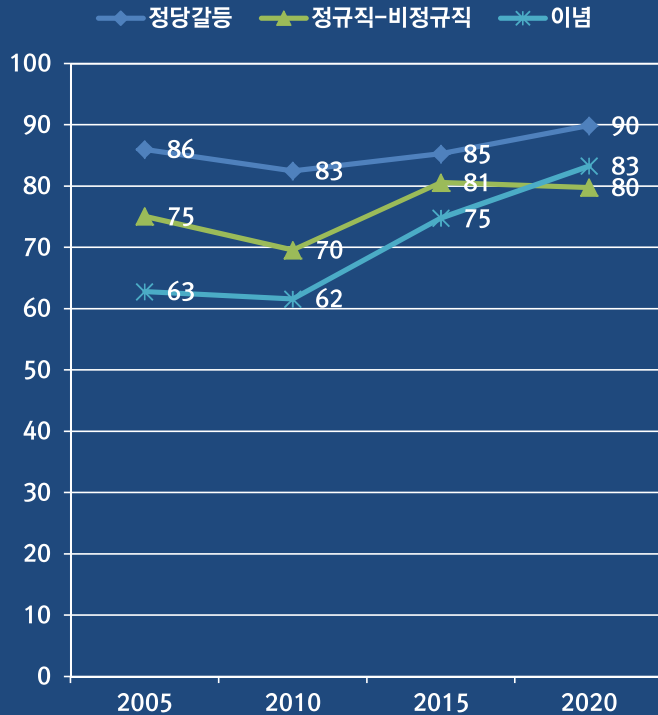
❖ Top 3 갈등요인

- Top3 갈등: 정치이념갈등(진보정당과 보수정당, 진보 대 보수)과 비정규직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80%를 상회
- 계급갈등 요인 중 “노-노 갈등”이 Top3 요인으로 자리 잡아
- 완화되던 “진보-보수” 집단 갈등이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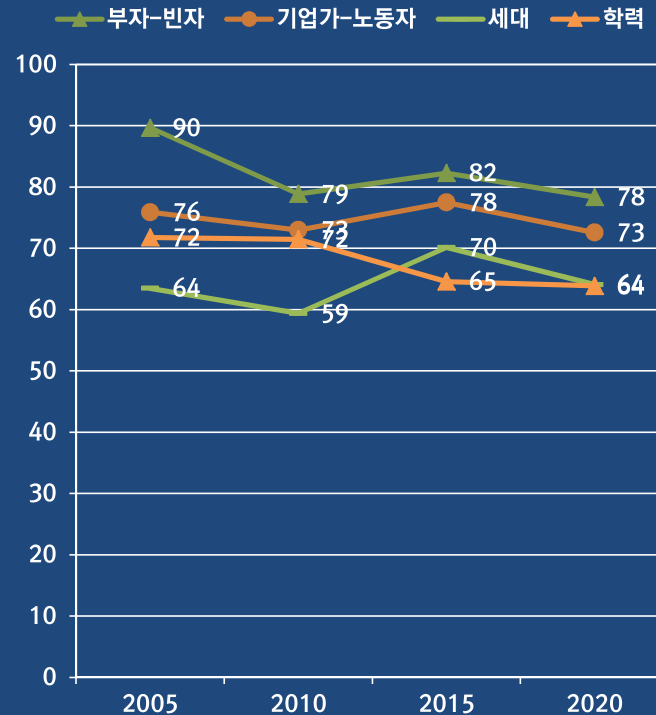
❖ 계급갈등 심각성 공고화, 정체성 집단 갈등은 잠복

- 빈부갈등/노자갈등보다 ‘비 정규직 갈등’이 더 심각
✓ 전통적인 빈부격차(78%), 노-자(73%), 학력/세대 갈등(64%)
- “영호남 지역갈등” (59%), 수도권-지방주민’(44%) 갈등은 상승세
- ‘남녀’ 집단 간 거리감은 35% 전후 잠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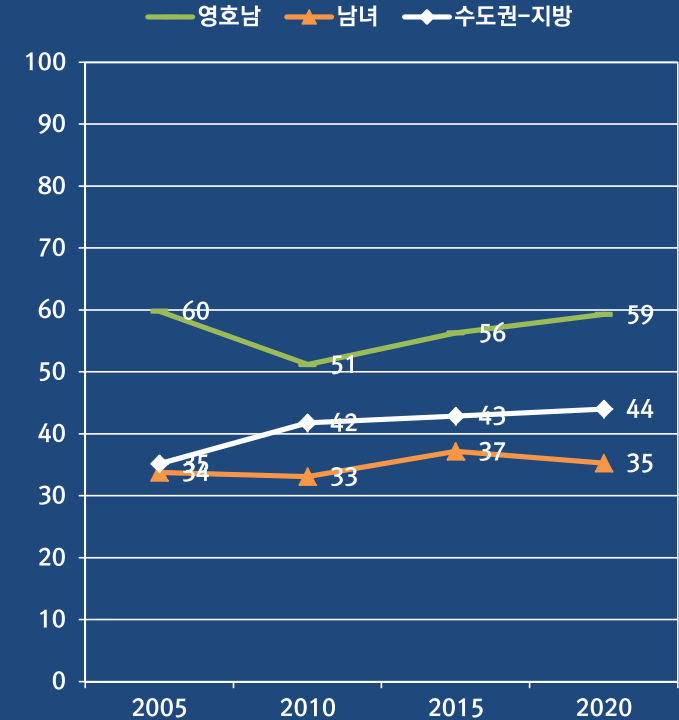
Top3 정치이념갈등과 비 정규직 갈등



공고화된 계급갈등



정체성 갈등은 잠복



이념 갈등에 대한 탐색

이념적 양극화는 심화되는가?

- * 정당 양극화인가? 유권자의 양극화인가?
- * 중도는 없다? 신 중도의 특징 “양가적/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

이념적 주류의 교체?

- * 진보 우위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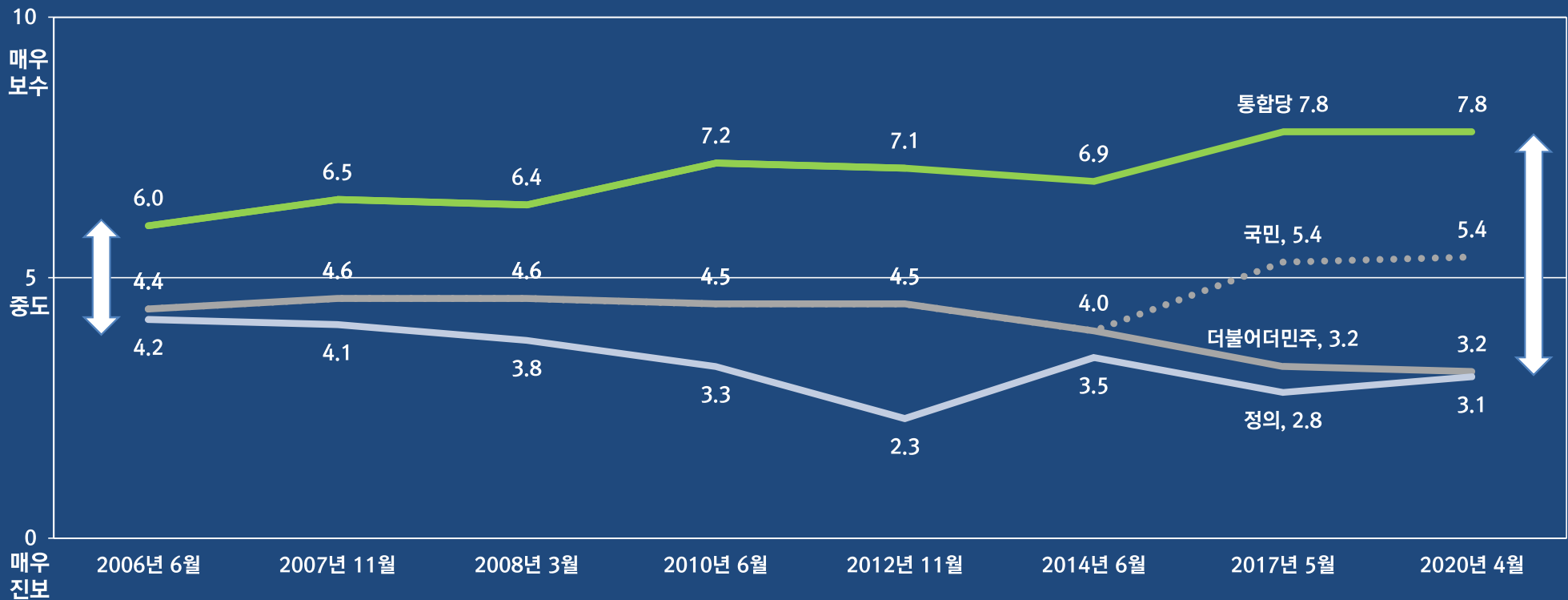
1. 정치 양극화의 심화

❖ 주요 정당 이념적 포지션의 양극화

- 선거 전후 유권자들의 각 당의 이념적 포지션 평가: 양극화 심화
 - ✓ 2012년-14년 전후 진보정당의 진보화, 탄핵 전후 보수정당의 보수화 경향 강화
- 2006년 양당 거리 1.4점, 2020년 양당 거리 4.6점으로 확대

❖ 보수정당의 보수화 > 진보정당의 진보화

- 보수정당 7.8점 (중도 포지션과의 거리 2.8점)
 - ✓ 촛불/탄핵 계기로 중도 포지션으로부터 거리 더불어민주당 대비 더 멀어져
- 더불어민주당 3.2점 (중도 포지션으로부터의 거리 1.8점)
 - ✓ 반면 정의당은 2012년 이후 상대적으로 온건중도화 경향 (현재 3.1점)
 - ✓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념적 차별화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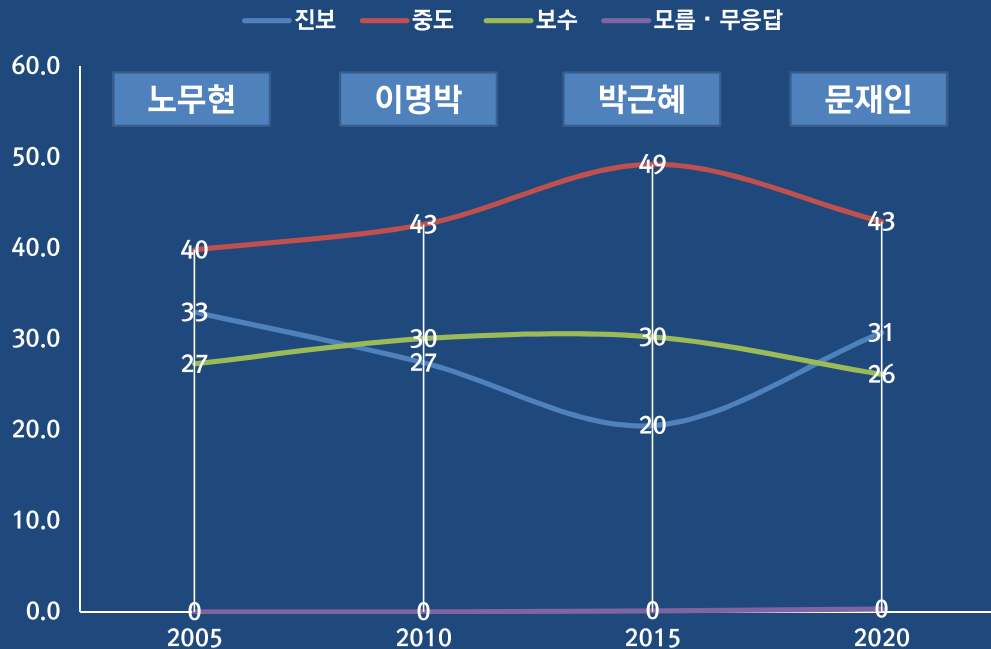


2. 유권자 이념 정체성 변동

❖ 유권자 수준에서도 이념적 양극화 심화되나?

- 한국사회, 중도 다수파 사회
 - ✓ 40% 상회하는 중도정체성 집단의 무게 중심
- 유동적인 정치지형: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의 정권교체
 - ✓ 정권교체 → 기대 → 실망 → 정권연장과 기회 → 누적된 실망 → 정권교체 (1997 → 2007 → 2017)

이념 정체성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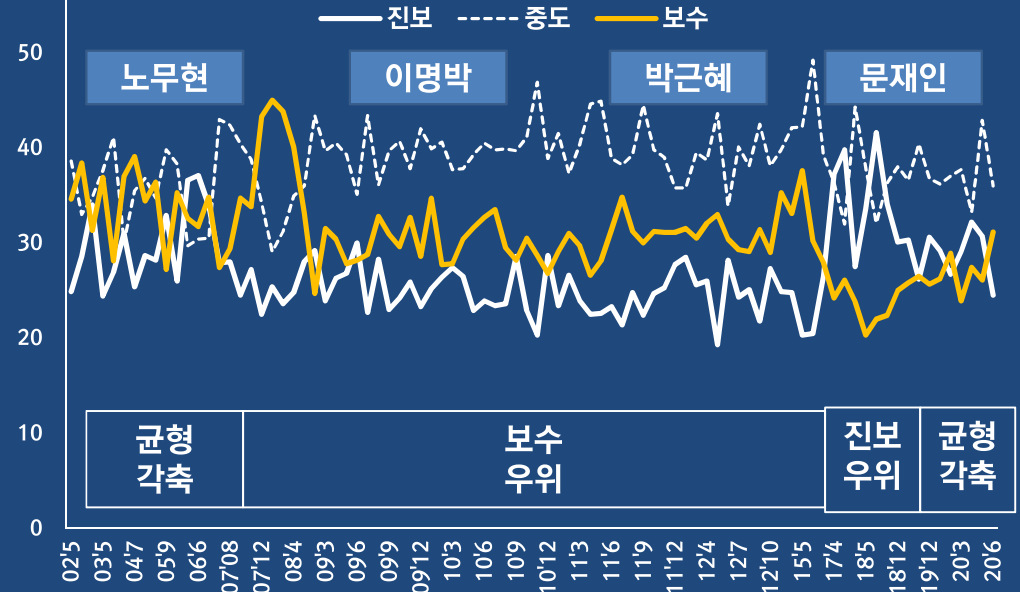


❖ 한국, 이념 재편 평가는 성급: 구조적 변화 < 이념적 무드

- 진보 대 보수 유권자 상대비중: 정치적/이념적 무드(mood) 변화
 - ✓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시기 보수층의 증가 → 촛불/탄핵 이후 역전
- 촛불 정국에서 진보 우위로 전환 → 최근 진보-보수 균형 국면으로 전환
 - ✓ 진보-보수 각축(참여정부) → 보수 우위(MB/박 정부) → 진보우위 → 각축기

주관적 이념정체성 변화

(EAI / 한국리서치 DB, 2002-2020)



3. 국민여론의 양가적/유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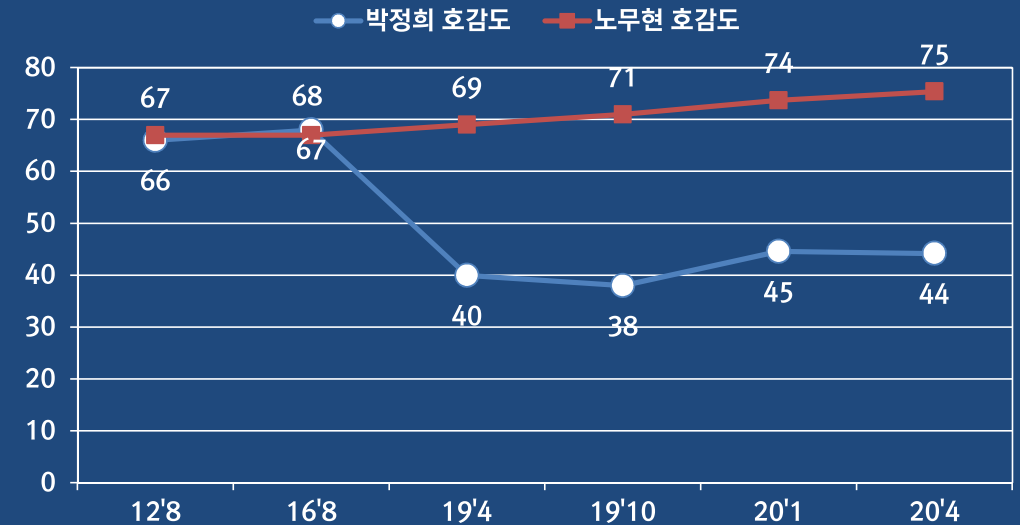
❖ 정치적 기반(power & symbolic capital)에서 진보 우위

- 최근 네 번의 전국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압승
- 대통령 고공 지지율, 여당 지지율 우위, 보수 기반의 균열

정치발전	2020		2015		2010		2005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승만	43	57	56	44	44	52	39	53
박정희	61	39	74	26	72	26	73	25
전두환	23	77	36	64	29	70	25	71
노태우	21	79	27	74	21	77	13	84
김영삼	52	48	39	61	36	63	22	75
김대중	74	26	66	34	67	32	51	47
노무현	78	22	71	29	68	31	30	65
이명박	25	74	31	69	44	54	-	-
박근혜	17	83	43	57				
문재인	67	32						
경제성장	2020		2015		2010		2005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승만	39	61	49	52	38	58	36	52
박정희	91	9	93	7	94	5	97	2
전두환	47	53	59	41	49	50	51	46
노태우	30	70	34	66	25	73	21	75
김영삼	36	63	30	70	25	74	12	86
김대중	67	32	59	41	57	43	39	19
노무현	69	31	60	40	59	41	15	82
이명박	30	70	30	70	47	51	-	-
박근혜	18	82	39	61				
문재인	59	40						

❖ 정치적 상징의 교체 : 경제도 정치도 보수 → 정치는 진보

- 정치발전의 상징 교체: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긍정평가 74~78%
 - ✓ 보수대통령으로는 박정희 61% > 김영삼 52% > 이승만 43% 순
 - ✓ 박정희 대통령은 2015년까지 정치발전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평가 능가
 - ✓ 2015년까지 저평가되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발전에 대한 평가 개선
- 박정희 대통령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상징
 - ✓ 경제성장에 기여 박정희 91% > 노무현 69% > 김대중 67% > 전두환 47% 순
 - ✓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성장 기여 평가도 급격히 호전
- 촛불 탄핵 후 보수의 상징, 박정희 전대통령 정서적 일체감(호감도) 급락
 - ✓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박정희 상징이 작동
 - ✓ 정서적으로는 촛불/탄핵 국면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민 다수의 호감을 받았던 보수의 상징. 탄핵 이후 호감도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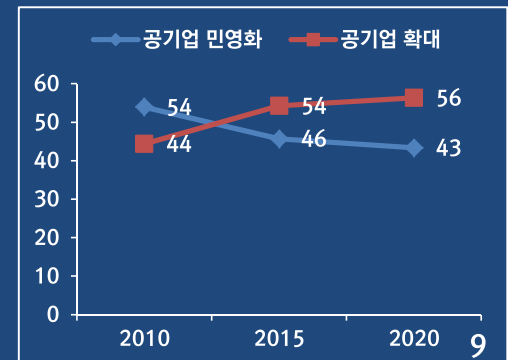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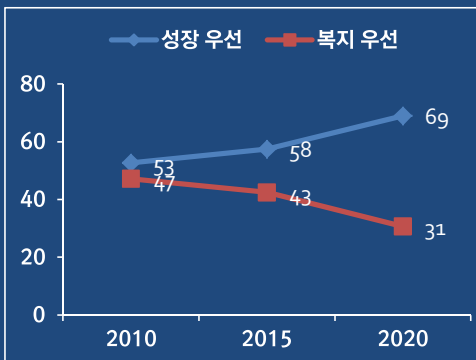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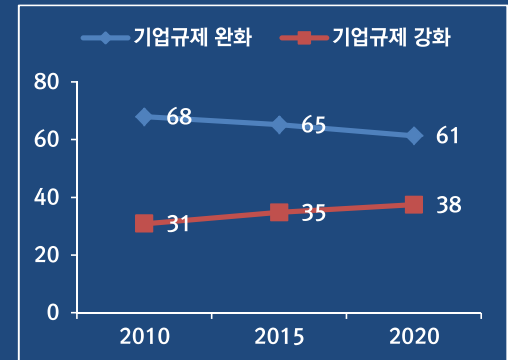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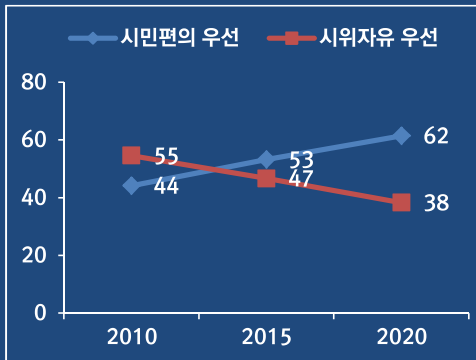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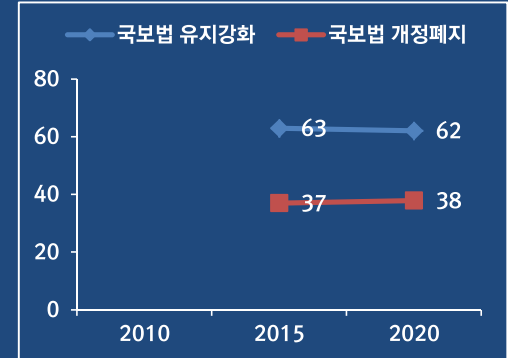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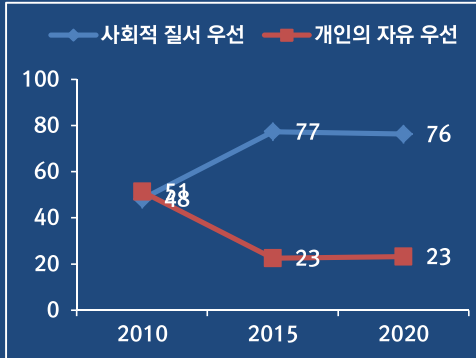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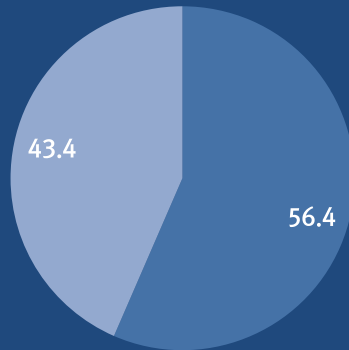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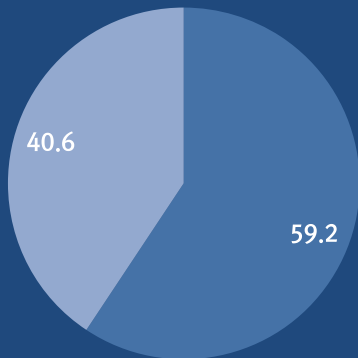


3. 국민여론의 양가적, 유동적 특성

❖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안정과 질서, 경제적 보수 선호

- 사회경제적 보수성이 공존하는 국면
 - ✓ “사회적 질서 우선” 76% 대 “개인의 자유 우선” 23%
 - ✓ “시민불편 초래하는 집회시위 제한” 62% 대 “불편해도 시위 보장” 38%
 - ✓ “성장 우선” 69% 대 “복지 우선” 31%
 - ✓ “국가보안법 유지/강화” 62% 대 “개정/폐지” 38%
 - ✓ “원전 필요” 59% 대 “원전 축소” 41%
- 기업 영역에서는 규제완화 여론 감소, 공기업 확대 여론 증가
 - ✓ “기업규제 완화해야” 61% 대 “기업규제 강화해야” 38%, 규제완화 여론 감소
 - ✓ “공기업 민영화” 43% 대 “공기업 확대” 56%, 확대 여론 증가 추세
 - ✓ “타다 등 혁신산업 육성” 56% 대 “택시 등 전통산업 보호” 43%

■ 원자력 발전소 필요 ■ 원자력 발전서 줄여야 ■ 혁신기업 육성 ■ 전통산업 보호



COVID-19의 여파

코로나 19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변화 : 총선에 미친 영향을 넘어

- * 신뢰기반의 강화, 국가 자부심과 애착의 심화
-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국가자부심의 상승, 사회의 진전에 약인가? 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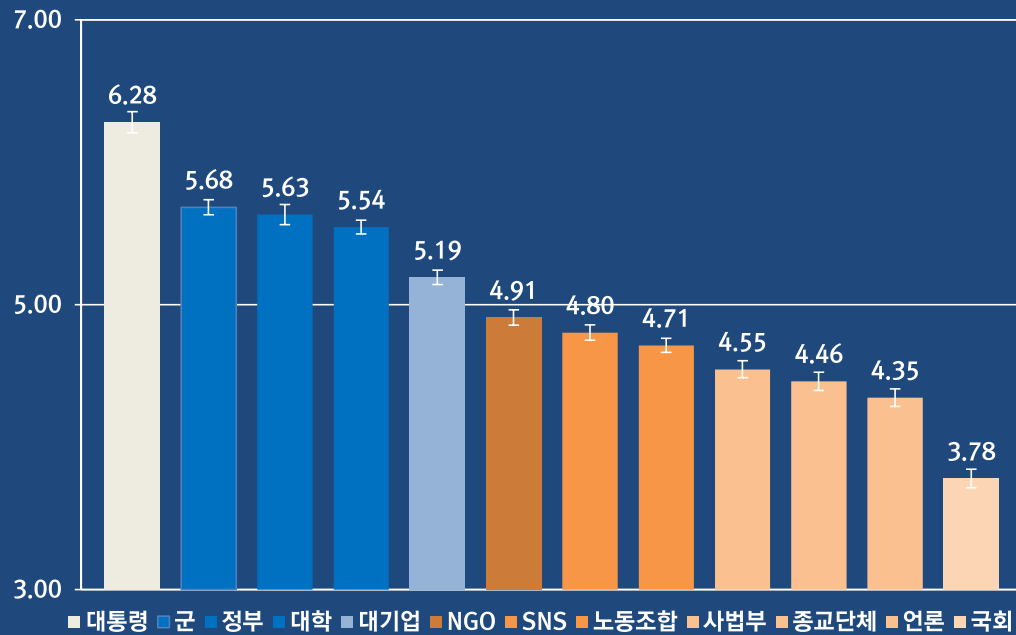
- * 애국심과 사회신뢰, Positive Correlation? Negative Correlation?

1. COVID-19가 가져온 변화

❖ 대통령/정부 신뢰도 제고 (0 불신-5 중간-10 신뢰)

- 대통령/정부/군 등 정부조직에 대한 신뢰도 향상
- 민간 기관으로는 대학과 대기업만 5점 이상 신뢰
- 입법-사법부 신뢰도, 민간 기관(언론, NGO, 노조, 종교기관)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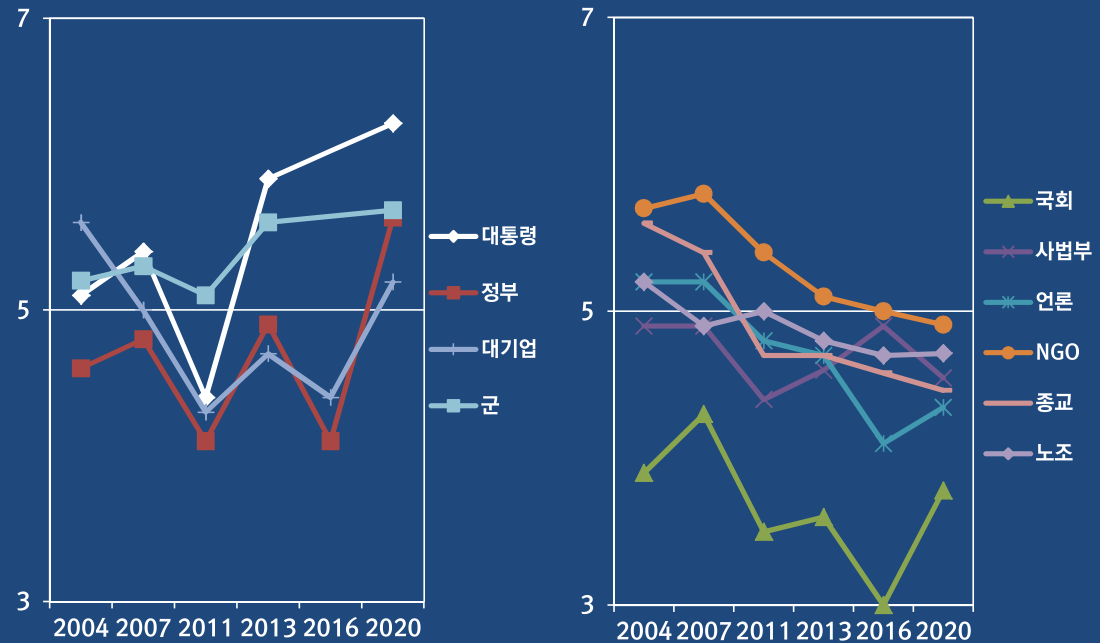
제도신뢰 평균(2020, 10점 만점)



❖ 코로나 19가 가져온 신뢰기반의 변화

- 코로나 대응에 기여한 대통령/정부/대기업 신뢰도 향상
 - ✓ 군은 2000년대 들어 가장 신뢰도 높은 조직
 - ✓ 국회는 가장 불신 받는 기관
- 신뢰기관에서 불신기관으로 전락: 언론, 노조, NGO, 종교기관

제도신뢰 상승기관과 하락기관(2004-2020) (2016 조사 대통령/군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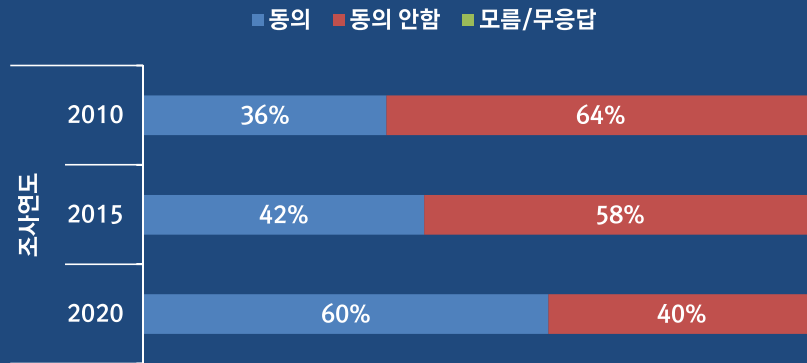


1. COVID-19가 가져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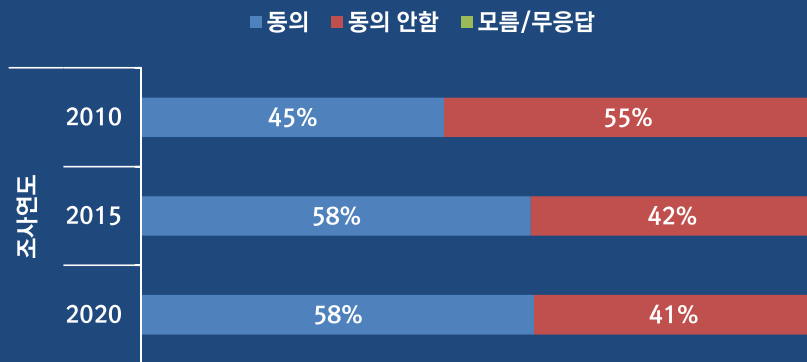
❖ 변한 것 “한국은 저신뢰 사회인가”

- 정부 신뢰, 포괄적인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향상

정부는 소수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전체국민을 위해 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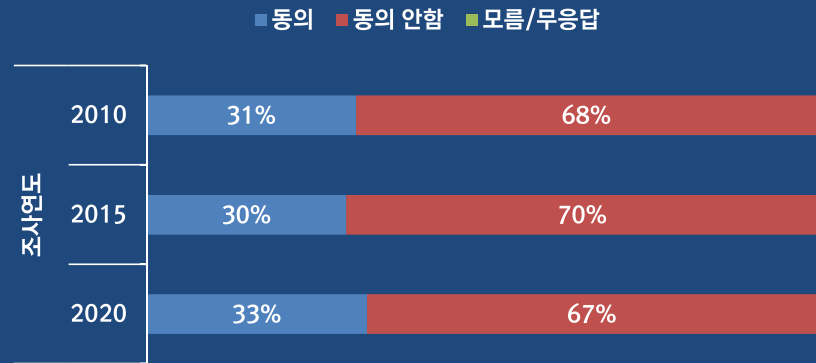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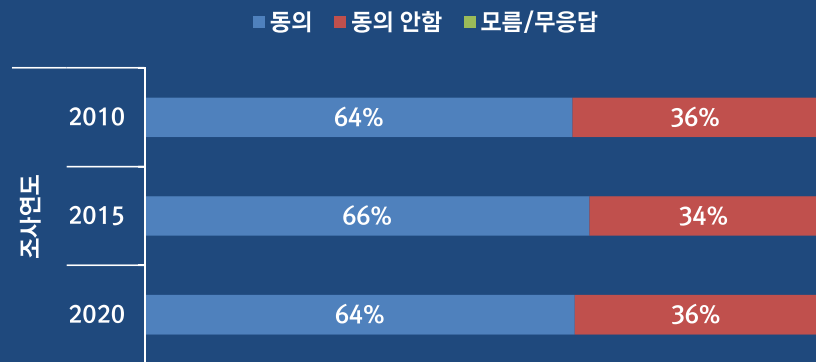
❖ 변하지 않은 것 “한국은 고신뢰 사회로 진입했나”

- 시스템의 공정성과 법치 주의 작동 등 사회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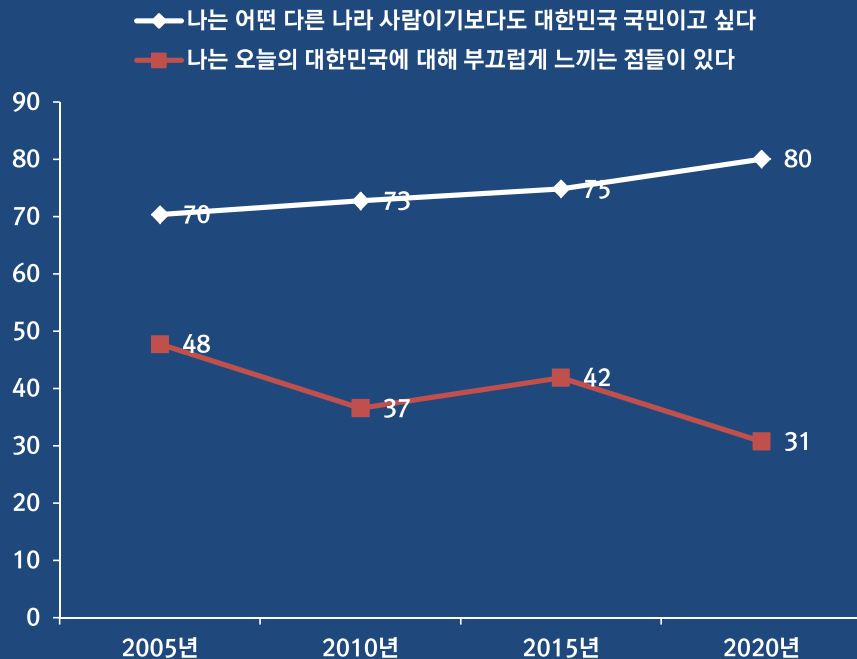


2. 국가에 대한 애착과 사회신뢰

❖ 국가 자부심의 강화

- 2005년 조사 이래 대한민국 자부심과 심리적 애착 강화
 - ✓ 절묘한 현실: 국가자부심의 향상과 헬 조선 담론의 공존
- 강한 국가 애착, 사회를 강화시키나? 약화시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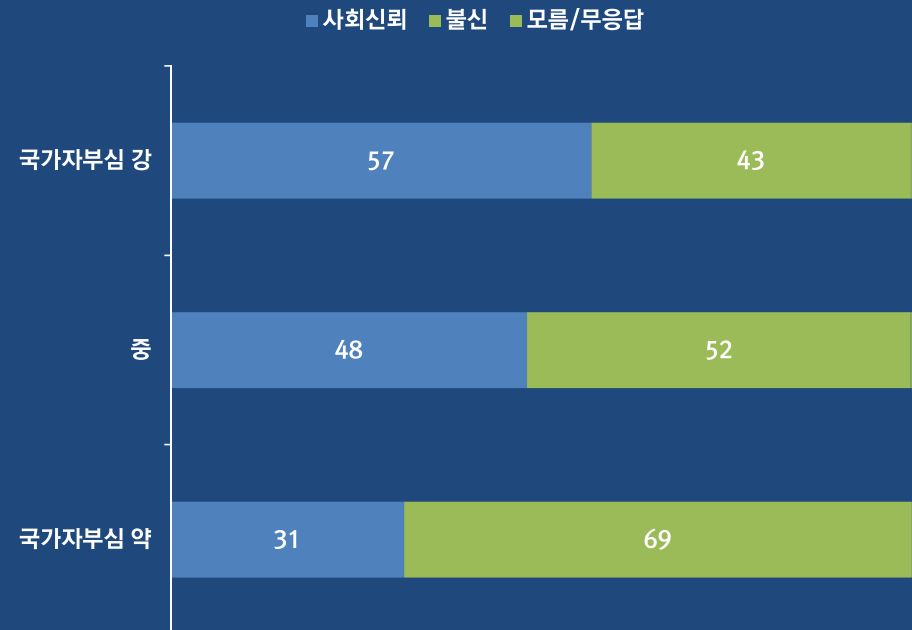
국가에 대한 심리적 애착: 동의비율(%)



❖ 국가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중요한 이유

- 사회신뢰는 민주주의의 윤활유(Putnam 1995)
-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사회신뢰와 연동된다
 - ✓ 국가에 대한 애착과 사회신뢰와의 관계: Positive 인가? Negative인가?
- 한국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록 한국은 서로 믿고 살만한 사회라는 인식 커

국가 자부심(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과 사회신뢰(한국은 믿고 살 만한 사회다)(%)



전망과 쟁점

진보우위의 이념구도,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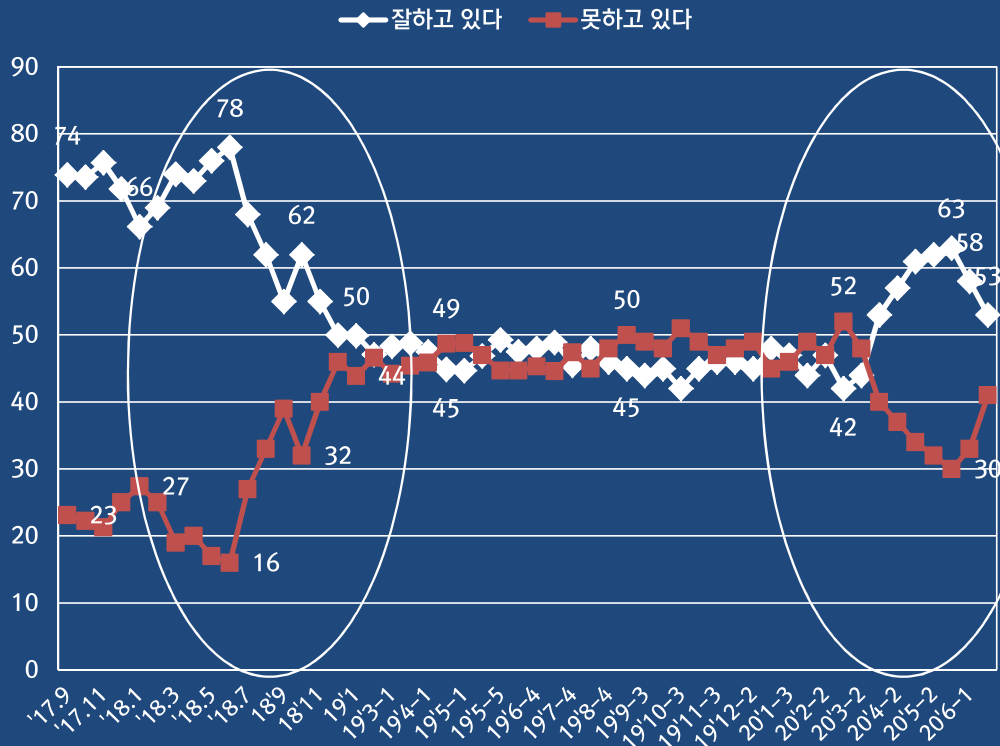
- * 진보 우위 정치구도: 구조적 현상인가 ? 가변적 현상인가?
- * 세대 균열 → 코호트 효과인가(공고화) ? 피리어드 효과인가?

1. 진보우위 정치구도의 균열 조짐

❖ 총선 후 국정 지지율의 반전

- 4월 총선 진보진영 승리 후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 : 복합요인 작용
- 2018년 지방선거 승리 후 지지율 급락 현상의 재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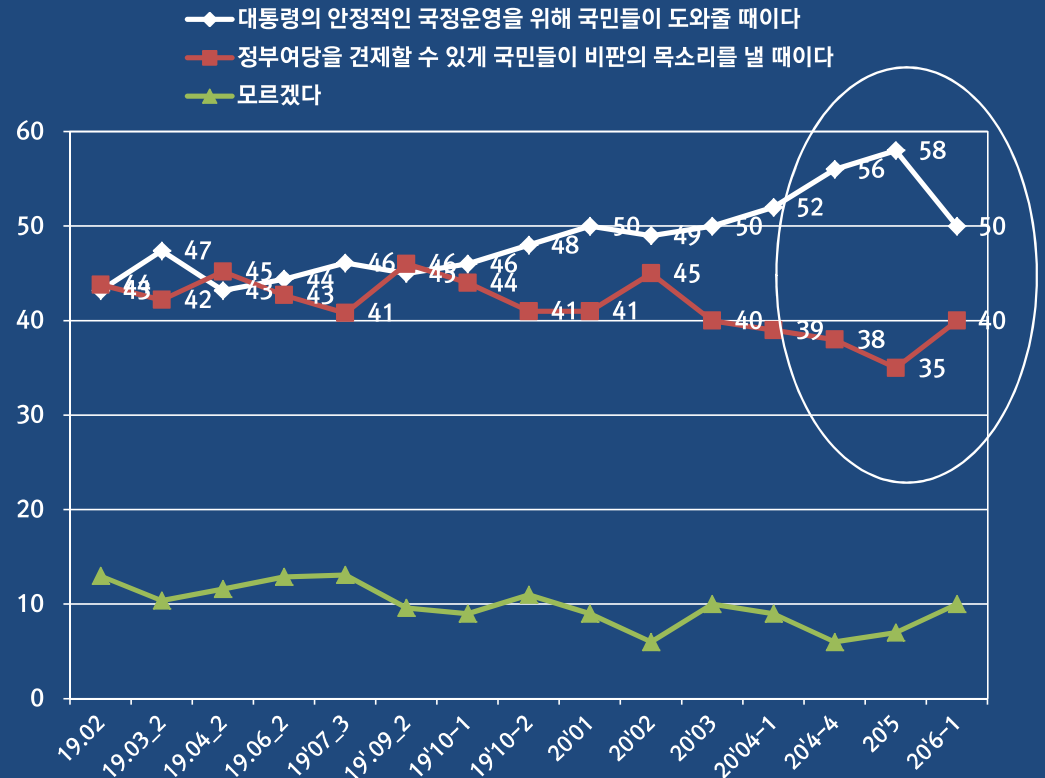
문대통령 국정 평가 변동(%)



❖ 국정 신뢰의 급격한 냉각, 국정 견제론의 재 부상

- “우리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54%(5월)→ 45%(6월)
- 코로나 국면에서 상승하던 국정 안정론” 총선 이후 급락

국정 안정론 대 견제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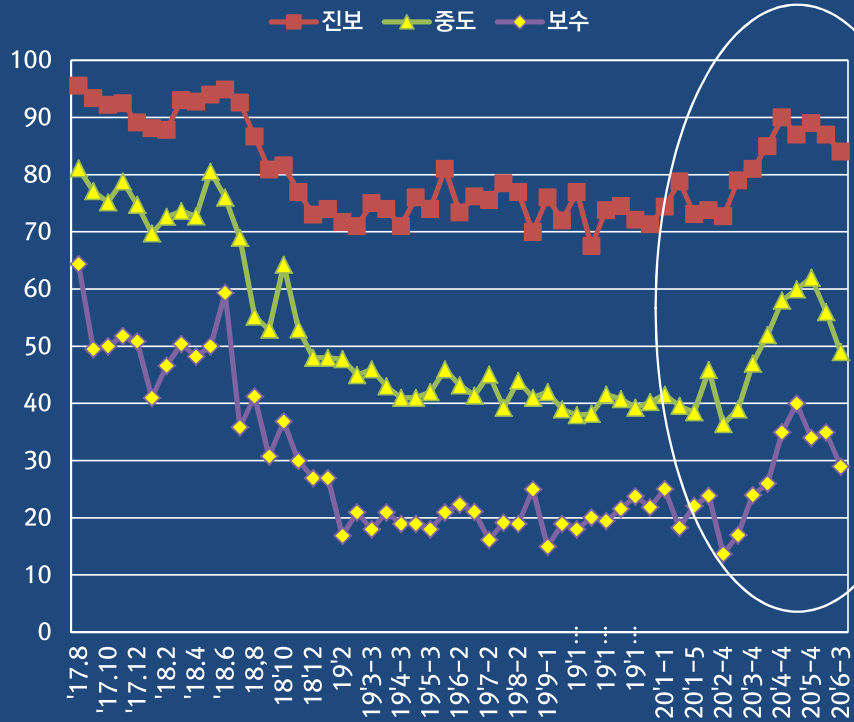


1. 진보우위 정치구도의 균열 조짐

❖ 코로나 효과의 소실 조짐

- 중도층 이탈 가속화: 중도(40%대 진입)+보수 연합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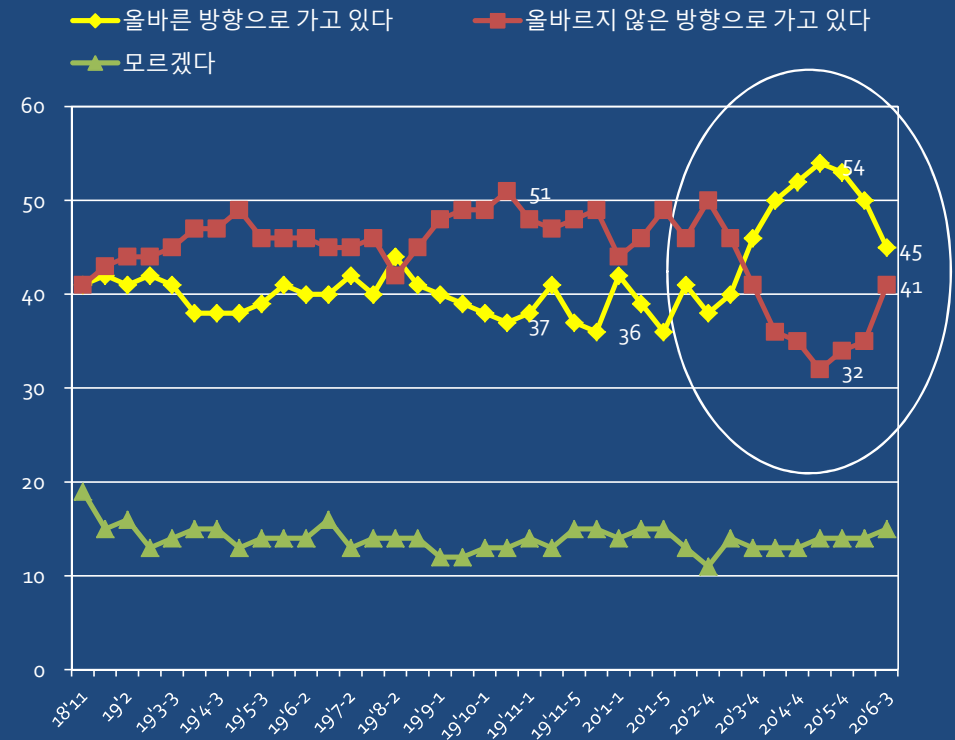
문대통령 국정 평가 변동(%)



❖ 사회신뢰와 국가자부심 상승, 단기효과로 그칠 가능성

- “우리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54%(5월)→ 45%(6월)
- 코로나 국면에서 상승하던 국정 안정론” 총선 이후 급락

정치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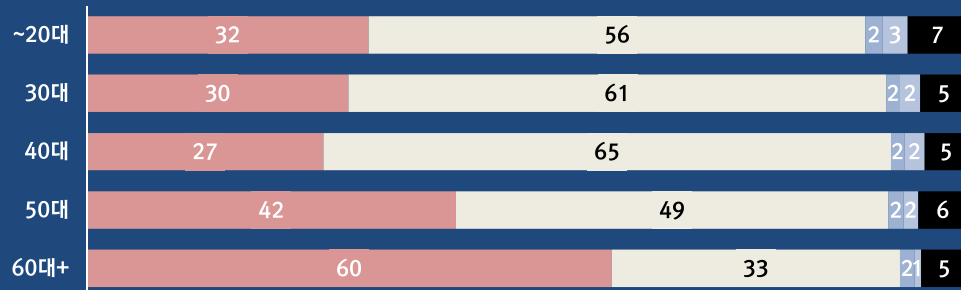
2. 변동 요인: 진보우위의 세대균열, 코호트 효과인가

❖ 21대 총선 결과: 60대 제외, 2050세대의 진보우위

- 21대 총선에서 2040세대에서 진보우위, 50대에서도 여당 우세
- 20대의 진보성, 50대의 코호트 효과(386효과) 평가
→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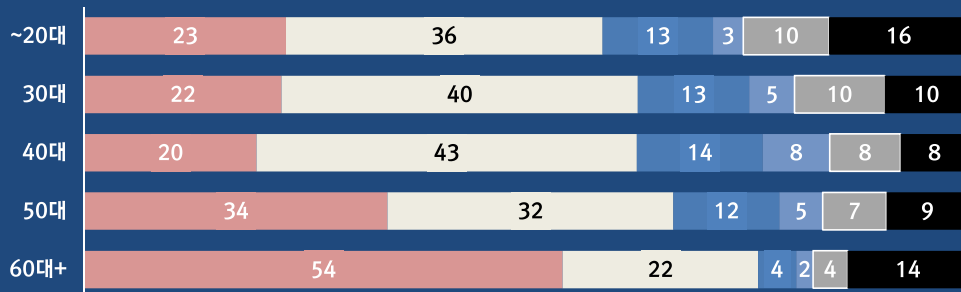
출구조사: 지역구

■ 미래통합 ■ 더민주 ■ 민생 ■ 정의 ■ 기타



출구조사: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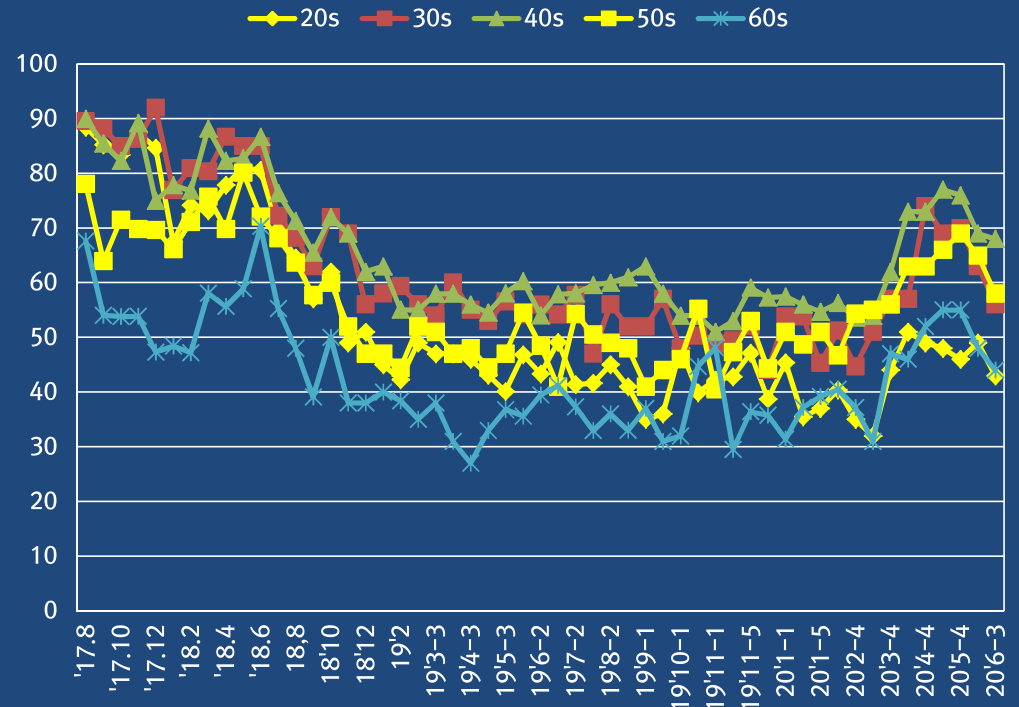
■ 미래한국 ■ 더시민 ■ 정의 ■ 열린민주 ■ 국민 ■ 기타



❖ 세대연합의 변동

- 집권 초 : 2040 vs. 50 vs. 60+
→ 지방선거 이후 3040 vs. 20/50 vs. 60+
- 총선 전후 : 3050 vs. 20/60+ → 최근 40 vs. 30/50 vs. 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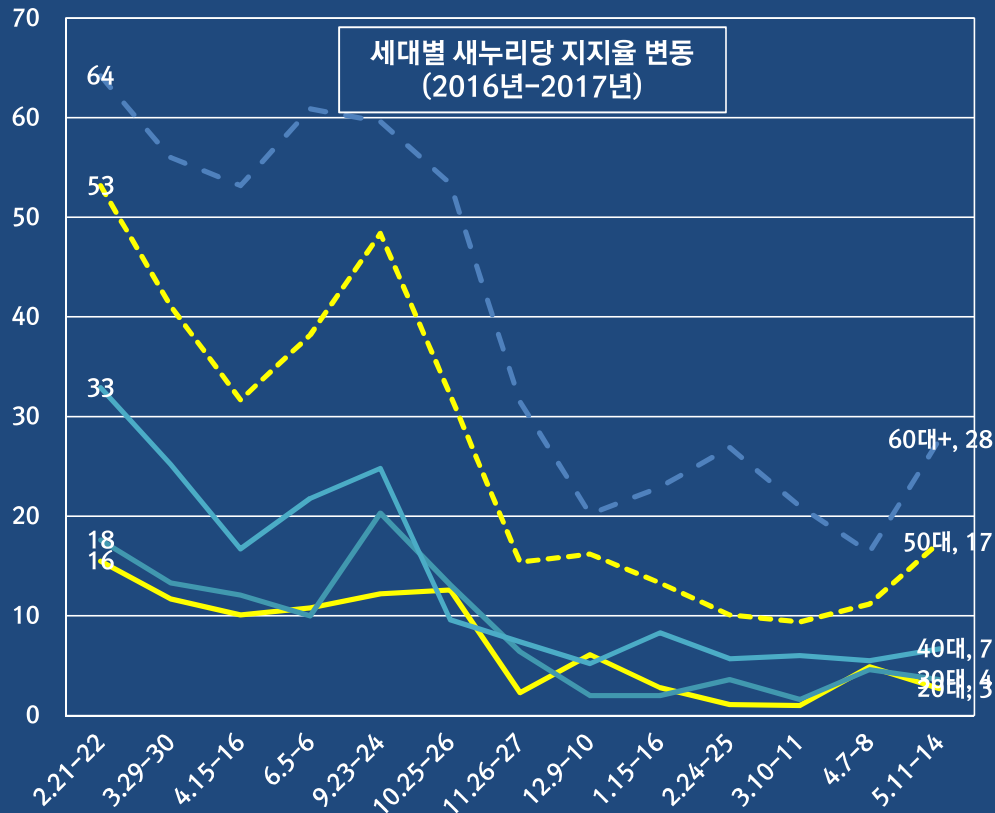
세대별 국정 긍정평가 변동(%) : 2017년~2020년



2. 변동 요인: 진보우위의 세대균열의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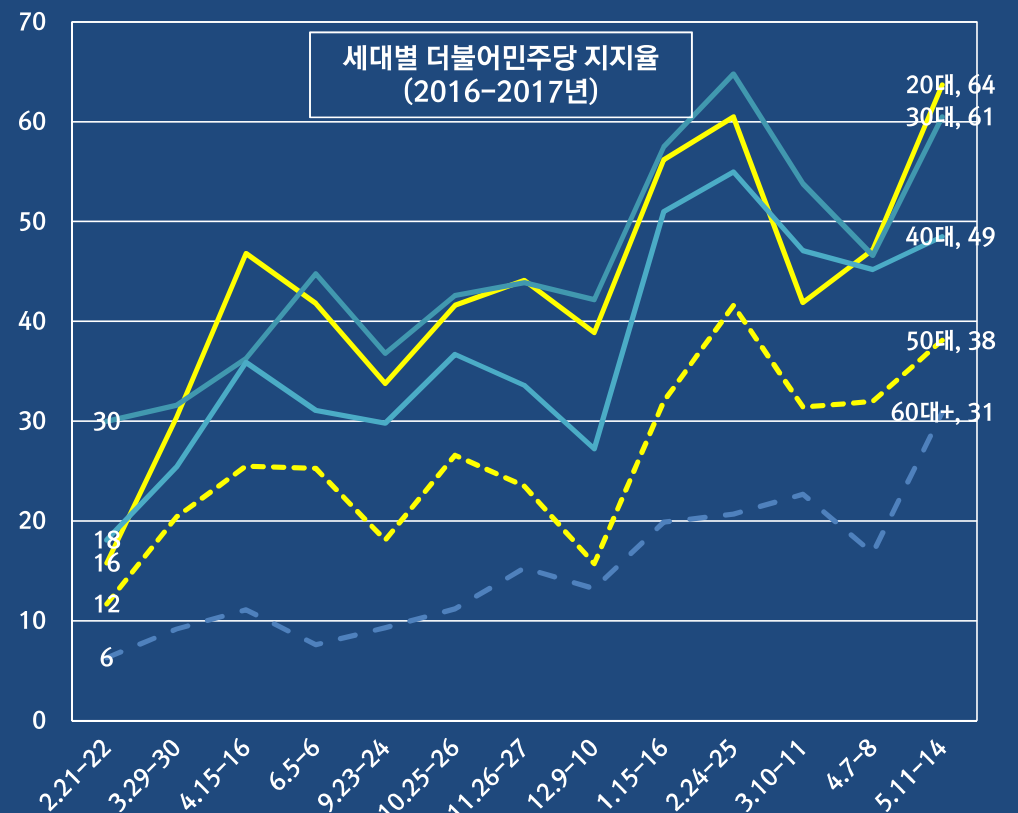
❖ 21대 총선 결과: 60대 제외, 2050세대의 진보우위

- 21대 총선에서 2040세대에서 진보우위, 50대에서도 여당 우세
- 20대의 진보성, 50대의 코호트 효과(386효과) 평가
→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론”



❖ 코호트 효과: 태도형성기 정치성향의 안정성 가정

- 선거 투표 행태, 국정 지지, 정당 지지도에서 시기별 변동성이 커
- 세대군 간 격차는 유지, 변동의 패턴은 유사 → 코호트 효과* 피리어드 효과에 주목할 필요



2. 변동 요인: 진보우위의 세대균열, 코호트 효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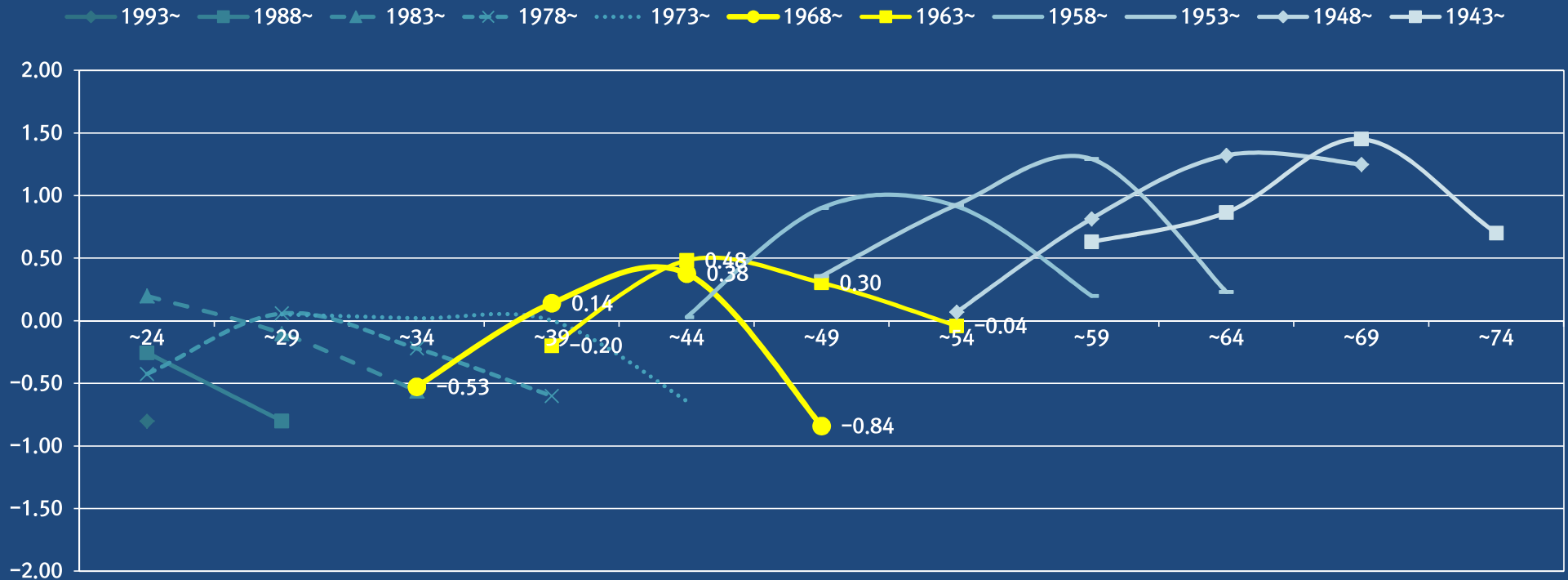
❖ 동일 코호트의 주관적 이념정체성 변화

- 네 차례 대선 시기 동일출생 코호트 기준 주관적 이념 평가 평균변동
- 5살 씩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해당 코호트의 이념 포지션 변화 추적
→ 코호트 효과 작동한다면 이념포지션 변동 없다고 가정

❖ 16대 대선~18대 대선 보수화, 19대 진보화

- 기존 논쟁 연령효과 vs. 코호트 효과에 주목
- 전 코호트 집단에서 유사한 패턴 : 피리어드 기간 효과 간과 말아야
- 연령효과 및 코호트 효과 논쟁: 행위 외적인 결정론으로 귀결 말아야

동일출생시기 코호트집단의 이념정체성 변화(-5 진보~0 중도~+5 보수) : 16대 대선~19대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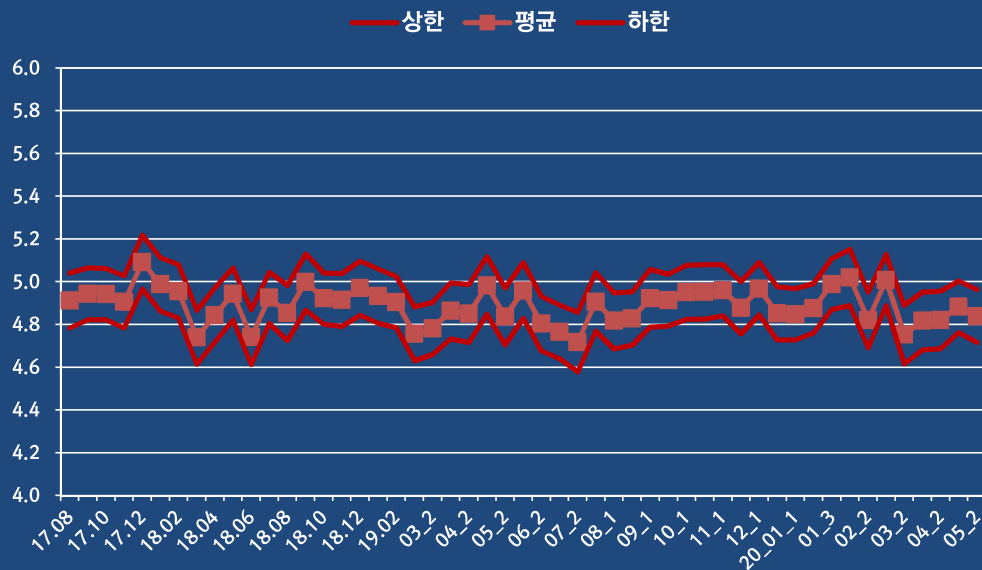


2. 변동 요인: 진보우위의 세대균열, 코호트 효과인가

주관적 이념성향 (0 진보-5 중도-10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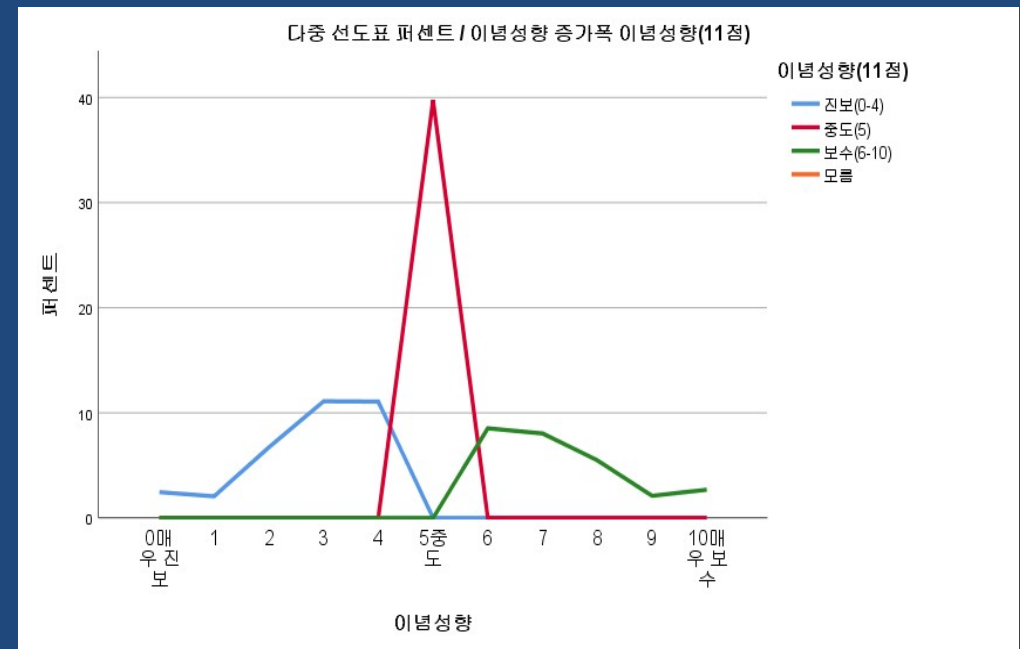
- 전체 평균은 4.7~5.1 사이에서 변동: 전체적으로 이념적 균형
- 미약하지만 진보우위 유지, 집권 초기 대비 완만한 좌향화
 - ✓ 95% 신뢰수준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관적 이념포지션 변동 (전체)



중도(Center) 무게중심, 상대적 진보우위

- <HRC> 정기지표 3년간 조사 집계(51,037명)
 - ✓ 중도(5점) 총 38.0%로 무게 중심
 - ✓ 진보(0-4점) 32.0% vs. 보수(6-7점)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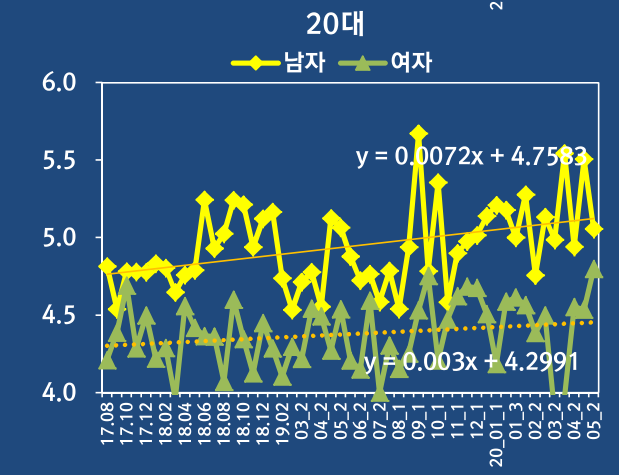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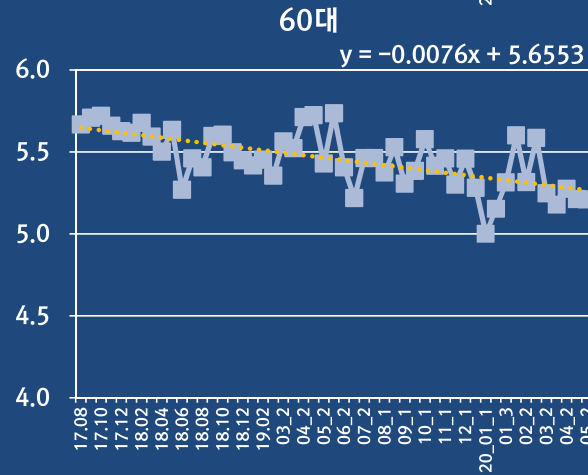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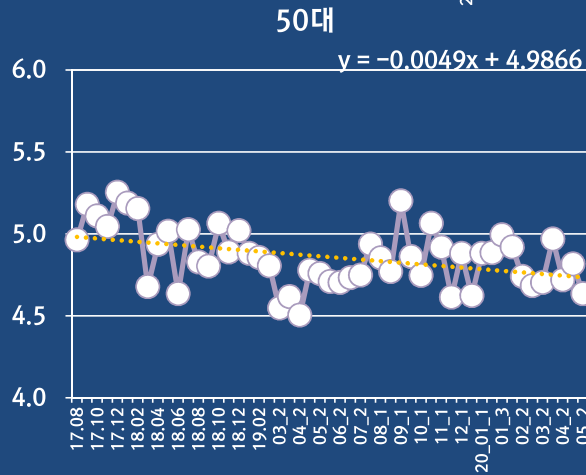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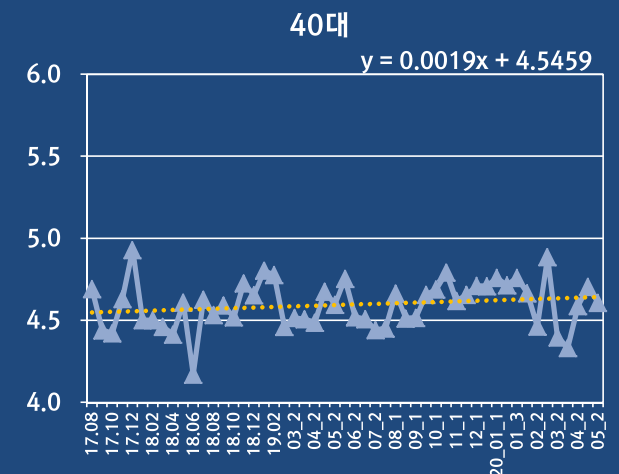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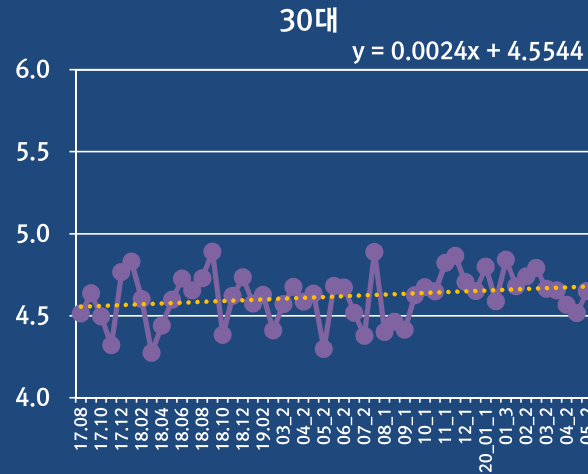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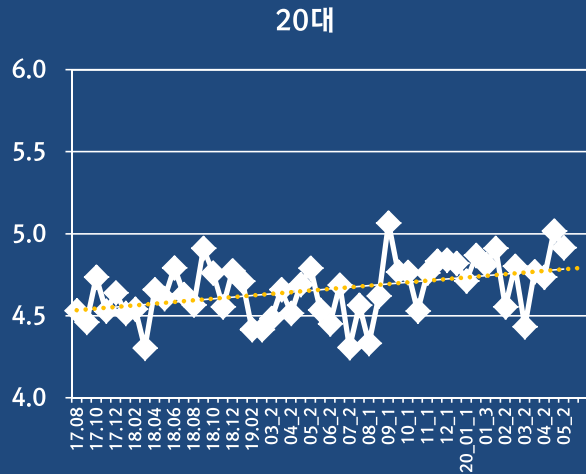


자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정기 조사(2017.8-2020.5)

2. 변동 요인: 진보우위의 세대균열, 코호트 효과인가

❖ 20대(남)의 우향우, 3040 진보성향

❖ 5060세대의 좌향좌(특히 60대)



자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정기 조사(2017.8-2020.5) 21

3. 변동 요인: 집권 후반기 경제 대응

❖ 본 조사, 국가 경제 1년 전 대비 “나빠졌다” 75%

- 체감경제 악화: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진보우위 구도: 구조화된 현상 보다는 보수의 균열과 코로나 방역성과의 결과

❖ 임기 후반 정부의 경제 대응 평가에 따라 태도 변동 가능

- 일반적으로 국가경제 악화가 가정경제 타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 이번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나빠졌다” 는 응답 57%, 2008-2009년 경제 위기 국면보다 높은 수준

